

# 『한정우기(閑情偶寄)』 「종식부(種植部)」를 통해 본 식물의 상징성과 완상(玩賞) 방식\*

장림\* · 양유선\* · 성종상\*\*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협동과정 조경학 박사과정 ·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환경조경학과 교수

## A Study on Symbolism and Appreciation of Plants through 'Xianqingouji Zhongzhibu'

Zhang, Lin\* · Yang, Yoo-Sun\* · Sung, Jong-Sang\*\*

\*Doctoral Course of Interdisciplinary Program of Landscape Architecture, Graduates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Professor, Graduate School of Environmental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 ABSTRACT

In this study, 27 representative plants with symbolism and appreciation were extracted from 68 plants collected in Li Yu (1611-1680)'s monograph named 'Xianqingouji Zhongzhibu'. The interpretations were as follows.

First, symbolism of plants could be summarized as 1) Li Yu thought that *Paeonia suffruticosa* was called 'the king of flowers', not only because of its beauty, but also because of its upright character. The only flower that could compete against *Paeonia suffruticosa* was *Paeonia lactiflora* Pall.. This flower was called 'the flower prime minister' by common people. But Li Yu thought that *Paeonia lactiflora* Pall. should also be included in the feudal princes. 2) *Prunus persica* and *Camellia japonica* were compared to 'beautiful cheeks', and *Malus spectabilis* (Ait.)Borkh, *Jasminum sambac*, *Rosa multiflora* var. *platyphylla*, *Narcissus tazetta*, *Papaver rhoeas* were compared to 'beautiful women', expressing his love for flowers. 3) Li Yu called *Nelumbo nucifera* a 'gentleman in flowers' and *Buxus sinica* Rehd. et Wils. Cheng a 'gentleman in trees'. On the contrary, *Daphne odora* was compared to 'villain in flowers'. 4) *Ilex integra* was compared to a hermit, and *Campsis grandiflora* was compared to an immortal. Second, appreciation of plants could be organized by 1) Appreciation of plants required assistive tools. When going to suburb to enjoy the scenery, tents needed to be prepared. Paper screens should be used to appreciate *Prunus mume* in the courtyard so as to gain more elegant. Li Yu also proposed that ornamental objects should be properly placed near *Orchidaceae* so as to gain more elegant. 2) Li Yu took *Lagerstroemia indica* and *Prunus armeniaca* L. as examples to interpret that plants were as perceptive as animals and human beings. 3) Li Yu took *Salix pierotii* and *Albizia julibrissin* as examples to interpret that people should communicate with plants through five senses to produce resonance. And took *Nelumbo nucifera* and *Rosa rugosa* to emphasize the ornamental and practical value of plants. 4) Plants were metaphored sth. similar to them. An interesting example was *Celosia cristata* L. which was more like an auspicious cloud in the sky than the crest on the cock's head.

To sum up, Li Yu personified plants and thought that people should communicate with plants by multi-sensory world when appreciating plants. Through this, it fully showed his love for plants. Meanwhile, Li Yu's symbolism and appreciation of plants, to some extent, reflected the elegant life of literati in the early Qing Dynasty.

*Key words: Personification, Plants Culture, Qing Dynasty, Synesthesia*

\* 본 논문은 2019년도 한국전통조경학회 춘계학술대회 2019년도 '제4회 풍경원림식물과 인간주거환경건설'포럼의 발표 내용을 수정·보완한 것임.

† **Corresponding Author** : Sung, Jong-Sang, Graduate School of Environmental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151-742, South Korea, Tel: +82-2-880-1423, E-mail: jssung@snu.ac.kr

## 국문초록

본 연구는 이어(李漁; 1611-1680)의 『한정우기(閑情偶寄)』 「종식부(種植部)」에 수록된 68종 식물 중 상징적 의미와 독특한 완상 방식을 지닌 27종의 식물을 추출하여 고찰했다. 해석한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식물의 상징성이다. 1) 모란은 외적으로 꽃이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강직하고 정직한 특성을 갖기 때문에 화왕(花王)으로 삼는다. 모란과 겨룰 수 있는 꽃은 작약밖에 없으나 작약을 화상(花相)으로 비유한다. 이어는 작약도 마땅히 다섯 등급의 제후(諸侯) 대열에 속해야 한다고 했다. 2) 이어는 복사꽃과 동백꽃을 미인의 뺨으로 해당화, 재스민 꽃, 다화장미, 수선화, 개양귀비를 자태가 다양한 여인으로 비유하면서 이에 대한 사랑스러운 감정을 꽃에 투영하였다. 3) 이어는 연꽃을 꽃 중의 군자로, 황양목을 나무 중의 군자로 삼는다. 반대로 서향을 꽃 중의 소인(小人)으로 비유한다. 4) 감탕나무는 풍채가 있으나 절개를 과시하지 않는 까닭에 이어는 감탕나무를 은사로, 멀리서 바라본 농소화를 하늘 끝의 신선으로 비유한다.

둘째, 식물의 완상 방식이다. 1) 식물감상 시 보조 시설을 활용해야 한다. 야외에 나갈 때 천막을 휴대해야 하고, 정원에서 매화를 감상 시 종이 병풍을 활용해야 정취를 더욱 느낄 수 있다고 했다. 매화 이외에도 이어는 난초 옆에 감상할 수 있는 기물을 배치해야 더욱 다채롭게 식물을 향유할 수 있다고 했다. 2) 이어는 백일홍과 살구나무의 예를 들어 식물은 동물과 사람처럼 지각이 있다고 주장했다. 3) 오감으로 식물과 교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고, 이는 버드나무와 합환을 통해 가능하다고 했다. 연꽃과 매괴의 예를 들어 식물은 관상 가치뿐만 아니라 실용 가치가 있다고 강조했다. 4) 사물의 비유로, 일반 사람들은 계관화를 ‘닭 벼슬’로 보는 반면에 이어는 하늘의 상서로운 구름과 같다고 했다.

종합하자면 본 연구는 이어가 식물에 의미를 부여하여 인간의 다감각적 세계를 식물에 투영해서 인격화하고 식물에 대한 그의 사랑을 더해 독특한 식물 향유 방식을 표출해 냈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 명말청초에 문인들이 아취(雅趣)의 삶을 추구했는데, 그의 식물의 상징성 및 식물 완상 방식은 그 당시 문인들의 아취의 삶을 반영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주제어: 식물문화, 인격화, 청초, 통감(通感)

## 1. 서론

###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이어의 『한정우기』는 청나라 초기의 백과사전으로 일상생활 의식주행(衣食住行)에 대한 광범위한 내용을 다룬 연구 가치가 높은 저서이다. 이 저서는 청나라 초기 상업 발달의 사회 배경 및 이어의 독특한 시선으로 본 조원이론을 반영하고 있다[1]. 중국 근대 건축가이자 건축교육가인 동준(董騫)<sup>1)</sup>은 이어에 대해 ‘정원 조성에 정말 능통한 사람(眞通其(造園)之人)’이라고 했고, 당대 우수한 조원가로 평가했다. 이어는 자신의 정원을 조영하면서 조경요소 중 식물 소재 활용 및 애호 방식을 기록하여 식물에 대한 다양한 완상 방식을 제시하였다.

이어는 스스로를 꽃의 수호신(守護神)이라 칭하며 각 계절을 대표하는 꽃마다 생명을 지니고 있다고 비유했다. 즉, 봄에는 수선화와 난, 여름에는 연꽃, 가을에는 해당화, 겨울에는 매화라고 지칭했으며<sup>2)</sup> 이 꽃들은 각 계절을 관장한다. 역사를 거슬러 식물을 아끼고 사랑하며 또 식물로 하여금 자신의 감정을 부여하고 식물로 의인화를 표현하던 문인지사들은 이어를 포함하여 많이 있다. 굴원(屈原, B.C.340-B.C.278)은 향초를 충정(忠貞)의 품성, 임포(林逋, 967-1028)는 매화를 아내로, 도원명

(陶淵明, 365-427)은 국화를 은사(隱士)로 삼는다. 이러한 ‘비덕(比德)<sup>3)</sup>’의 자연미학사상은 동양 사람의 생활 특히 원림 생활에서 경관 감상 시 흔히 사용된 사고방식이라고 말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어의 『한정우기』 「종식부」에서 기록된 식물에게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지, 식물을 어떻게 향유하는지에 대해 연구하고자 한다.

### 2. 연구사 고찰

본 연구의 연구사는 ‘식물 문화 및 식물의 실제적 정원활용’, ‘조경 분야의 원림서 중심으로 식물의 배식·식물조경기법’ 두 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선행연구를 살펴보았다.

‘식물 문화 및 식물의 실제적 정원 활용’을 중심으로 한 연구 흐름을 살펴본 결과 시문과 회화 분야에서 So and Lim(2013)는 조선시대 매화시제(梅花詩題)를 통하여 매화 완상을 유형화하고 매화 완상에 관련된 경관 특성을 규명하였다[5]. Lee(2007)는 유석도(儒釋道)와 민간 풍속의 관점으로 매화의 상징성이 매화도(梅花圖)에 어떻게 형상화되는지 살펴보았다[6]. Lee(2010)는 파초의 문화적 의미를 파초와 연관되는 역사 인물과 그 고사, 회화에서의 형상화, 원예문화의 관련성 등으로 고찰하였다[7]. Kim and Hong(2011)은 시문과 회화를 고찰하고 해석하는 연구방법을 통하여 옛 선비들이 연(蓮)의 가치와

의미, 연을 활용한 방식, 감상 태도 등에 대한 실제적 사례들을 고찰했다[8]. Yun(2014)은 『시경(詩經)』에 수록된 시문에 등장하는 다양한 식물을 대상으로 식물의 활용 형태, 향유 방식을 문화적인 의미의 관점에서 고찰하였다[9].

최근에는 식물과 관련된 문화 연구에서 Wen *et al.*(2018)은 『초사(楚辭)』에서 식물의 분류와 특징 등을 통해 식물문화에 내포된 의미 및 식물의 정원 활용까지 깊이 있게 연구하였다[10]. Huang(2019)은 일본과 중국의 자등 덩굴 속의 정원을 들어 정원에서 식물 문화와 식물의 활용까지 연구하였다[11]. Zhao and Chen(2019)은 시공간과 식물문화 세 가지 측면에서 역사문화와 인문 체계를 서사적인 표현으로 식물 디자인에 접목시켜 전통문화를 계승할 수 있도록 돕고 체험자들의 정서적 공간 조성을 위한 연구를 시도하였다[12].

Gu(2013)는 『원야(園冶)』 본문에서 나타난 식물 요소를 정리하고 그 중 비중이 높은 '대나무, 버드나무, 매화나무와 소나무'를 중심으로 식물감상과 식물조경기법을 언급했으며[13]. Li and Lin(2010)은 『장물지(長物志)』에서 조경 식물의 선재(選材)와 식물 배식을 중심으로 식물조경기법을 정리하였다[14]. Wang(2015)은 『원야』의 26종, 『장물지』의 70종 원림식물 경관을 비교하면서 식물에 내포된 사상을 정리하였다[15]. Jung *et al.*(2014)은 명말청초 『원야』, 『장물지』와 『한정우기』에 수록된 죽병(竹屏)의 활용과 그 의미를 해석했으며 그 중 이어의 『한정우기』 「종식부」에 덩굴 식물의 활용 방법에 관한 내용을 다루었다[16]. Park and Yun(2016)은 한·중 원림서인 『양화소록(養花小錄)』과 『장물지』에 나타난 화목류를 통하여 한·중 문인원림 취미에 대해 비교 연구했다[17].

이상과 같이 식물 문화 및 식물의 실제적 정원활용, 조경 분야의 원림서 중심으로 식물의 배식·식물조경기법을 주제로 한 연구가 꾸준히 진행되어 왔으나 조경과 관련성이 큰 청초 이어의 『한정우기』 「종식부」에 나타난 식물 문화에 대하여 조명한 연구는 없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한정우기』 「종식부」의 텍스트 원본을 연구대상으로 삼아 이 저서에 수록된 68종 식물 중 상징적 의미와 독특한 완상 방식을 지닌 식물을 분석하고 해석하는 데 목적을 둔다.

## II. 연구방법

### 1. 연구의 자료

분석된 저본은 절강고적출판사(浙江古籍出版社)에서 출간된 이어전집(李漁全集) 제3권 『한정우기[3]』와 최근 국내에 출간된 역서인 『쾌락의 정원[18]』을 참조하여 원문과 번역문을 상호 비교하여 검토했다. 기록된 식물명은 Zhang(2010)의 저서

[4]를 참고하여 식물 명칭을 확인하고 검토하였다.

『한정우기』 「종식부」는 목본, 등본(藤本)<sup>4)</sup>, 초본, 화훼(花卉)<sup>5)</sup>와 죽목(竹木) 다섯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68종의 식물이 수록되었다. 제1장 목본 식물은 모란, 매화나무, 복숭아나무, 자두나무, 살구나무, 배나무 등 24종, 제2장 등본은 장미, 목향, 월계화, 자매꽃, 능소화 등 9종, 제3장 초본 식물은 작약, 란, 해초, 수선, 연꽃, 양귀비, 해바라기, 원추리 등 15종에 대해 다루었다. 별도로 화훼는 제4장에서 다루고 있는데 파초, 개양귀비, 남천 등 9종이 있고 마지막으로 제5장 죽목은 앞서 꽃을 관상하는 1~4장과는 달리 나뭇잎이나 전체 수형을 관상하기에 좋은 나무들<sup>6)</sup>인 대나무, 소나무, 오동나무와 회화나무 등 11종에 대해 다루었다.

## 2. 연구방법

본 연구는 『한정우기』 「종식부」에 수록된 68종의 식물을 대상으로 텍스트 중심으로 해석했고 구체적인 진행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한정우기』 「종식부」를 통해 기존의 선행연구<sup>7)</sup>에서 다루지 않은 식물의 상징성<sup>8)</sup>과 완상방식<sup>9)</sup>을 각기 다른 식물을 통해 고찰하였다. 연구 대상은 상징성을 가지는 식물 14종, 특정한 완상 방식을 가지는 식물 14종(중복되는 연꽃 포함)을 연구대상으로 삼았다.

둘째, 식물의 상징성은 1) 화왕(花王)과 화상(花相), 2) 미인 얼굴과 가인(佳人), 3) 군자와 소인(小人), 4) 은사(隱士)와 신선 총 네 가지로 표현되었다. 이와 같이 표현된 14종의 식물을 표로 정리했고(Table 1), 해당 원문을 제시하여 이어가 각 식물에 부여한 상징적 의미를 해석하였다.

셋째, 식물의 완상 방식은 1) 보조 시설 이용, 2) 식물의 지각, 3) 통감과 실용성, 4) 사물의 비유 총 네 가지로 표현되었다. 이와 같이 표현된 14종의 식물(중복되는 연꽃 포함)을 표로 정리했고(Table 2), 해당 원문을 함께 제시하여 이어가 각 식물에 대한 완상 방식을 해석하였다.

## III. 결과 및 고찰

### 1. 식물의 상징성

#### 1) 화왕(花王)과 화상(花相)

군화(群花) 중 모란은 그 외형이 아름다워 꽃의 왕 자리를 차지하며 화왕이라 불렸으나 이어는 처음에 이러한 관점에 공감하지 않았다. 그러나 모란과 관련된 고사 '모란을 낙양으로 낮추다(牡丹被貶洛陽)<sup>10)</sup>'를 통해 모란이 강직하고 정직한 특

성을 지니고 있음을 깨닫고 모란을 화왕이라 인정했다고 한다.

사실 꽃이 피는 시기는 저마다 생장 시기에 따라 이뤄지는데 해당 시기가 아니면 '10명의 요임금이 있어도 겨울에는 밀 한 톨이 자라지 못한다(雖十堯不能冬生一穗)'고 했듯이 꽃이 피지 않는다. 모란 또한 마찬가지로 이어는 모란과 관련된 고사를 통해 모란을 절개와 지조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하여 현사(賢士)로 비유했다.

이러한 모란의 아름다움에 겨울 수 있는 꽃으로 작약이 있는데 이어 외 대부분의 옛 선비들은 모란을 화왕이라고 부르고 작약을 꽃의 재상[화상(花相)]이라고 부르며 두 꽃에 격차를 두었다. 옛 선비들이 작약을 화상으로 칭하며 격을 낮춰 부른 까닭을 살펴보면 작약의 꽃과 향이 모란에 버금감에도 불구하고 나뭇가지와 줄기가 약한 속성을 지녔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어는 작약이 화상이라고 불리는 것을 안타까워하며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모란과 작약이 비록 존비(尊卑)의 차이는 있지만 작약도 마땅히 다섯 등급의 제후(諸侯) 대열에 속해야 한다<sup>11)</sup>.

이어는 외견만 보고 꽃의 등급을 정하는 것은 불공평하다 여가며, 다음과 같은 근거를 들어 객관성을 유지했다. 꽃의 외형을 봤을 때 모란은 목본 화훼 식물이고 꽃이 필 때에는 나뭇가지 위에 우뚝 서서 기세가 생기면 위엄과 존귀한 자태를 형성할 수 있다. 그에 반해 작약은 초본 식물이므로 잎만 있고 줄기가 없다. 그렇기에 지지대가 없을 시 땅에 쓰러져 있을 수밖에 없다<sup>2)</sup>. 이에 작약을 공신(功臣)으로 비유했고 꽃 중에서 다섯 등급의 제후(諸侯) 대열에 속해야 한다고 했다.

## 2) 미인 얼굴과佳人(佳人)

색이 가장 요염한 복사꽃은 수명이 짧아 '홍안박명(紅顏薄命<sup>13)</sup>)'이란 말을 만들었다. 복사꽃의 색은 붉은색 중에서 가장 순수하고 자두꽃의 색은 흰색 중에서 가장 순결하다는 기록이 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 꽃의 아름다움보다 주로 과실 맛의 유무를 중시했는데 이는 감상성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다. 복숭아를 접목하면 맛은 있을지언정 복사꽃이 가진 순수한 색은 변하게 된다. 이에 반해 접목하지 않은 복사꽃은 빛깔이 매우 곱고 마치 미인의 얼굴과 같다. 이른바 '도새(桃腮)와 '도염(桃靨<sup>14)</sup>)'은 접목하지 않은 복숭아꽃을 가리키며 지금 언급하는 벽도(碧桃)·역도(繹桃)·금도(金桃)·은도(銀桃)는 모두 접목한 복숭아를 지칭한다.

앞서 언급했듯이 접목하지 않은 복사꽃은 순수한 색을 지녔기에 고결한 아름다움을 보인다. 순수미를 지닌 복사꽃들은 대부분 시골 농가, 목동 나무꾼이 거처하는 곳에 많이 자리한다. 복사꽃을 보려고 나귀를 타고 교외로 나가 거니는 것은 마치

무릉인(武陵人)들이 우연히 복사꽃 동산에 들어가는 것처럼 정취를 얻을 수 있다.

이외에도 이어는 다른 아름다운 가목(佳木)으로 해당화(海棠花)를 꼽았으며 이를 추해당(秋海棠)과 춘해당(春海棠)으로 나누었다. 또한 추해당을 춘해당보다 아름답다고 언급했는데 춘해당을 이미 출가한 여인에 비유하여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미인이라 일컫고 추해당은 아직도 출가하지 않은 여인으로 여겨 가냘프고 애잔한 미인에 비유하였다<sup>15)</sup>.

이어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농친 해당화의 은은한 향까지 찬미했다. 사람들은 흔히 해당화는 '유색무향(有色無香)'으로 오인(誤認)했지만 이어는 뒤의 두 가지 예를 통하여 해당화는 향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은은한 향이 꽃의 아름다운 색에 가려져 알아차리기 힘들다고 하였다. 첫째, 갓 개화한 해당화 꽃에는 은은한 향기가 배어나오므로 힘껏 향기를 맡기는 것보다 천천히 음미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했다. 둘째, 만약 해당화가 전혀 없었다면 벌이나 나비는 오지 않는다. 아래 정곡(鄭谷) 『영해당(詠海棠)』라는 시에서 이 증거를 찾을 수 있다고 했다.

이침에 취하고 저녁에 시를 읊으며 보이도 부족하여, 나비가 무성한 가지에서 잡지는 것을 부러워하네<sup>16)</sup>.

또한 해당화와 관련된 설화에 따르면 여인이 오지 않는 남을 그리워하며 눈물을 흘려내리자 그 자리에 마침내 해당화가 자라났다고 전한다. 따라서 이 꽃은 '단장화(斷腸花)'라고 부를 수 있다<sup>17)</sup>.

이외에 이어는 동백꽃을 미인의 뺨으로, 재스민 꽃을 아내로<sup>18)</sup>, 다화장미를 양가자매(楊家姊妹<sup>19)</sup>)로 비유하였다. 또한 수선화를 아담하면서 자태가 다양한 여인으로<sup>20)</sup>, 개양귀비를 하늘거리며 춤을 추는 여인으로<sup>21)</sup> 비유하면서 꽃에 대한 사랑스러운 감정을 다양한 꽃에 투영하였다.

## 3) 군자와 소인(小人)

주돈이(周敦頤)가 연꽃을 꽃 중의 군자로 비유한 것처럼 이어도 연꽃을 꽃 중의 군자라고 여겼으며 이에 더해 특이하게 황양목을 군자라고 칭했다. 그 까닭은 황양목은 겨울에 나뭇가지를 바꾸지 않고, 여름에는 잎을 바꾸지 않는 지조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황양목은 매년 일촌(寸<sup>22)</sup>)의 길이가 자라고 윤년(閏年)에는 오히려 일촌의 길이가 줄어드는데 이는 불공평한 '불인불의(不仁不義)'상황이다. 그러나 황양목은 하늘을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다른 나무보다 더 잎을 풍성하게 하며 성장한다. 이에 이어는 황양목에게 '지명수(知命樹)'이라는 명칭을 붙인다<sup>23)</sup>.

그러나 이와 반대로 이어는 서향을 꽃 중의 소인이라고 하며 『화보(花譜)』에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서향의 또 다른 명칭은 '사향(麝囊)'이라 불리며 다른 꽃을 손상시켜 단독으로 재배해야 한다고 했다<sup>24)</sup>.

또한 『장물지』에 서향은 단독으로 재배해야 한다고 언급하며 서향을 화적(花賊)<sup>25)</sup>이라고 불렀다[18]. 이러한 이유는 서향이 꽃이 피는 것은 겨울과 봄의 교차 시기다. 이 시절에는 많은 꽃이 낙화하고 개화하기 전이므로 서향을 만날 수 있는 꽃은 매화와 수선화뿐이다. 다행히 이 시기에는 두 종류 꽃이 시들어 갈 무렵이므로, 서향과 맞붙는 시간이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아 피해가 크지 않았다. 그러나 이와 달리 당송(唐宋)의 성현들은 서향을 사랑하고, 풍류를 즐겼으며 시를 써서 서향의 아름다움을 찬미하였다. 이른 봄철에 서향을 실컷 눈요기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이어는 당송의 성현들이 서향 꽃

의 고운 모습만 볼 뿐 다른 꽃에 피해를 주는 일면을 보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이를 통하여 서향이라는 한 종류의 꽃에 대해서도 선비들이 서로 다른 관점으로 꽃을 감상하였다는 흥미로운 특징을 발견할 수 있었다.

4) 은사(隱士)와 신선

이어는 감탕나무를 은사로, 능소화를 신선으로 비유했다. 감탕나무는 소나무와 잣나무의 푸른 실체와 내한성이 있어 은사에 비유한 것으로 보인다. 또 하나의 까닭은 매화와 대나무처럼 풍채가 있음에도 절개를 과시하지 않기 때문이다<sup>26)</sup>. 이 외에 이어는 능소화를 덩굴 식물 중 가장 존경할 만한 꽃이라 하며 곁에 자주 둘 수 없음에 한스럽다는 표현을 내비치기도 했다. 그 까닭으로 담벼락 위에 피어나는 능소화는 멀리서 바라

Table 1. A Symbolism of Plants[3][4][18]

Classification	Korean Name	Scientific Name[4]	Image[22]	Interpretation Content
'The King of Flowers' and 'The Flower Prime Minister'	모란 <sup>27)</sup>	<i>Paeonia suffruticosa</i>		Its Beauty and its Upright Character
	작약	<i>Paeonia lactiflora</i>		Be Included in the Feudal Princes(諸侯)
'Beautiful Cheeks' and 'Beautiful Women'	복사꽃	<i>Prunus persica</i>		Beautiful Cheeks of Women
	동백꽃 <sup>28)</sup>	<i>Camellia japonica</i>		
	해당화	<i>Malus spectabilis</i> (Ait.) Borkh		Beautiful Women
	재스민 꽃	<i>Jasminum sambac</i>		
	다화장미	<i>Rosa multiflora</i> var. <i>platyphylla</i>		
	수선화	<i>Narcissus tazetta</i>		
	개양귀비	<i>Papaver rhoeas</i>		
Gentleman and Villain	연꽃 <sup>29)</sup>	<i>Nelumbo nucifera</i>		Gentleman in Flowers
	황양목 <sup>30)</sup>	<i>Buxus sinica</i> Rehd. et Wils. Cheng		Gentleman in Trees
	서향	<i>Daphne odora</i>		Villain in Flowers: The reason is that the smell of this flower is strong like the 'musk' and also damages other flowers.
Hermit and Immortal	감탕나무	<i>Ilex integra</i>		Elegant but not Publicized
	능소화	<i>Campsis grandiflora</i>		It can only be seen from a distance, such as immortal in the sky.

볼 수밖에 없어 하늘 끝의 신선(天際真人)<sup>31)</sup>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 2. 식물의 완상 방식

### 1) 보조 시설 이용

이어는 매화 중에 특히 납매(腊梅)를 사랑한다 말하며 겨울철 이 꽃의 수호신은 자신이라 언급하였다. 이어가 사랑한 매화에는 그러나 감상 시 두 가지의 단점이 있다. 하나는 추운 바람<sup>32)</sup>이고 하나는 꽃을 열려 망가뜨리는 눈이다<sup>33)</sup>. 이에 이어는 열악한 자연 환경을 피하고 겨울 매화 감상 시 더욱 정취(情趣)를 느끼기 위해 아래와 같이 두 가지 방식을 제안하였다.

첫째, 야외에 나갈 때 천막을 휴대해야 한다. 천막을 삼면으로 둘러치고 앞면을 뚫어 그 천막 안에 불을 피워 따스하게 하고 술도 데울 수 있도록 석탄을 많이 준비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다<sup>34)</sup>. 둘째, 정원에서 매화를 감상하는 자는 종이 병풍 몇 개를 설치하여 병풍의 윗면은 평평한 지붕을 덮고 사방으로 창문을 열어 수시로 여닫을 수 있도록 한다. 또한 매화가 있는 쪽을 향해 창문을 열게 하여 매화뿐 아니라 모든 꽃도 이렇게 사계절에 걸쳐 감상할 수 있도록 한다. 상황에 맞도록 종이 병풍에 '취화거(就花居)'라는 작은 현판도 걸어야 한다. 꽃 사이에 깃발을 하나 세워 어떤 꽃이든 총칭을 붙여 '축지화(縮地花)'라고 했다<sup>35)</sup>. 이어는 또한 자신이 거주한 정원에서 특이한 식물의 외형을 모방하여 편액과 주련의 운곽을 만들어 정원을 즐겼다. 이 중에는 가을 낙엽 형태로 만든 추엽편(秋葉匾), 대나무 줄기로 만든 차군련(此君聯), 파초로 만든 초엽련(蕉葉聯)이 있다. 이를 통해 그가 자연을 사랑하고 삶을 이해하는 독특한 심미적 해안을 지닌 문인임을 알 수 있다.

매화 이외에도 이어는 난초를 사랑해서 난초를 자신의 봄철 생명으로 비유했다. 그는 난초와 교류하는 과정에서 정취를 더욱 느낄 수 있는 방법을 제안했는데 난초에 꽃봉오리가 돋았을 때는 야외에 있던 것은 실내로 옮기고, 멀리 떨어진 곳은 가까운 곳으로, 낮은 곳에 두었던 것은 높은 곳으로 옮기도록 위치를 바꿔 즐겨야 한다고 언급했다<sup>36)</sup>. 난초를 놓인 곳이 정해지면 서화, 향로, 꽃병 등 같이 감상할 수 있는 기물을 난초 옆에 배치해야 마땅하다. 다만 향을 같이 피워서는 안 되는데 이는 향기를 씹면 즉시 난초꽃이 시들어 버리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sup>37)</sup>.

더 흥미로운 것은 바로 난초의 향을 맡는 방법이다. '난초가 있는 방에 들어가 오래 머물러도 그 향기를 온전히 맡지 못한다(如入芝蘭之室, 久而不聞其香)'는 말처럼 난초가 있는 방에 오래 머무르는 것보다 따로 난초가 없는 방 한 칸을 설치하여 물러나 있는 장소를 마련해 향을 취하는 것을 권했다. 그 이유는 사람이 때때로 들어왔다가 때때로 물러나는데 들어오는 경

우가 많고 물러나는 경우가 적으면 시시각각 난초의 향기를 느낄 수 있기 때문이며 이것이 바로 이어가 난초의 향기를 누리는데 비결이었다.

### 2) 식물의 지각(知覺)

이어는 백일홍의 예를 들어 식물도 동물과 사람처럼 지각이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동물의 지각은 사람보다 조금 낮을 뿐이며 초목의 지각은 동물보다 약간 떨어진다<sup>38)</sup>. 그 이유는 백일홍이 가려움을 무서워하는 것에서 알 수 있다. 사람들은 간지럼을 타는 나무는 백일홍 한 종류뿐이고 다른 나무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모든 초목은 촉각을 느낀다. 다만 백일홍은 다른 나무에 비해 약간의 미동을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어는 모든 초목이 미세하지만 지각을 가지고 있음을 언급하며 모든 사람이 간지럼을 타지 않듯이 초목 또한 마찬가지로 처럼 고통을 느끼므로 초목을 함부로 벌채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식물 지각의 좀 더 흥미로운 사례는 살구나무이다. 살구는 열매가 열리지 않을 때 처녀가 늘 입는 치마를 나무에 묶으면 바로 주렁주렁 열매가 맺힌 설화가 있다<sup>39)</sup>. 이어는 처음에는 이러한 설화를 믿지 않았으나 실제로 시험해보니 의아하지만 이와 같은 사실을 얻었다. 그는 이를 차용해 다른 수목에서도 활용할 수 있다고 했다.

### 3) 통감(通感)과 실용성

이어는 식물이 지각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 사람의 오감을 통해 식물과 마주하면서 소통과 교감을 풍부하게 나누고 즐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첫째, 버드나무이다. 버드나무는 늘어진 긴 가지가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매미와 새가 깃 드는 장소인데 이는 이들이 여기서 노래를 부르기 때문이다. 새가 지저귀는 소리는 사람이 깨어 있을 때가 아닌 새벽녘 사람이 자고 있을 때이다. 새벽녘의 새소리는 듣기 좋은데 그 까닭으로 아침 일곱 시 이후는 사람이 모두 일어난 시각으로 새가 생명의 불안함과 무서움을 느껴 지저귀지 않고 부른다 하더라도 듣기 좋지 않은 소리가 나오곤 한다. 이러한 연유로 새소리가 낮에 듣기에 적합하지 않은 것이다. 이어는 장자의 고사를 인용하면서 자신이 새가 아니지만<sup>40)</sup> 새들과 통할 수 있는 자신을 새들의 지음(知音)<sup>41)</sup>으로 비유한다. 이를 통해 그가 자연 속 일부 새들을 얼마나 사랑한지를 알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이어는 사람들은 자연계의 사물들과 교류하기를 중시했다. 예컨대 정원에서 나무를 심을 때, 나무의 가지와 잎을 탐해 하늘의 달빛을 막아서 상월(賞月)을 제대로 즐기지 못하게 하는 것은 무심한 잘못이라고 했다. 주인이나 조원가는 처음 나무를 심을 때 이러한 사항을 예방하여


한군데 하늘로 통하는 공간을 남겨야 한다고 제안했다.

둘째, 합환(合歡)<sup>42)</sup>이다. 이어는 '원추리를 보고서 근심을 잊는다(萱草忘憂)'는 말을 들었지만 실제 본 적이 없다고 했다. 그러나 사람은 '합환을 마주할 때 분노가 사라진다(合歡蠲忿)'고 말하며 대개 이 꽃을 본 사람은 화를 풀어 기쁨이 되며 눈물을 그치고 웃지 않는 경우가 없다고 했다. 대체로 이 나무는 깊은 규방(閨房)과 내실에 심는데 합환을 내실에 심으면 사람이 떨어질 때 나무도 벌어지고 나무가 합치면 사람도 합친다. 사람이 합환에게 기쁨이 더하고 나무도 이리하여 더 무성해지므로, 이른바 사람과 장소가 서로 어울리는 것이다. 또 다른 답론은 남녀가 함께 목욕한 물을 뿌린 합환은 더욱 번성하여 자랑한다고 했다<sup>43)</sup>. 흥미로운 설화로 보이지만 이어는 오감으로 식

물과 교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고, 이는 위와 같이 버드나무와 합환을 통해 가능하다고 했다.

다음으로 이어는 연꽃과 매괴의 예를 들어 식물은 관상 가치뿐만 아니라 실용 가치도 중요하다고 했다. 이어는 연꽃에 자신의 여름철 생명으로 비유했으며 연꽃이 지닌 호감으로 네 가지를 들었다. 연꽃은 시각적으로 다른 꽃과 비교하면 작은 연잎 짝이 물 위에 나오는 날부터 꽃봉오리가 완전히 피어 꽃이 될 때까지 자라는 매 순간이 고운 자태인 꽃이다. 위에서 말한 것은 모두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코로 맡을 수 있는 것은 연꽃잎의 맑은 향기가 있어 그것들로 더위를 즉시 식힐 수 있다. 또한 맛깔스러운 것은 연밥과 연근으로 만든 반찬이 식탁에 차려져 입가에 향이나 미각과 후각을 동시에 즐길 수 있다

Table 2. An Appreciation of Plants

Classification	Korean Name	Scientific Name[4]	Image[22]	Interpretation Content
Requiring Assistive Tools	매화	<i>Prunus mume</i>		Appreciation of plants requires assistive tools. Tents and paper screens need to be prepared.
	난초	<i>Orchidaceae</i>		A Placing the Ornamental Objects Next to the <i>Orchidaceae</i>
Perceptive of Plants	백일홍	<i>Lagerstroemia indica</i>		Plants are as perceptive as animals and human beings.
	살구나무	<i>Prunus armeniaca</i> , L.		Tie a virgin's skirt to a tree and it will bear fruitful fruit.
Synesthesia and Practicability	버드나무 <sup>44)</sup>	<i>Salix pierotii</i>		Communicating With Plants Through Five Senses to Produce Resonance
	합환 <sup>45)</sup>	<i>Albizia julibrissin</i>		
	연꽃 <sup>46)</sup>	<i>Nelumbo nucifera</i>		
	매괴 <sup>47)</sup> (국명: 해당화)	<i>Rosa rugosa</i>		
Metaphored Sth. Similar to Plants	수국	<i>Hydrangea macrophylla</i>		A Ball Made of Strips of Silk
	금전화	<i>Inula britannica</i> var. <i>japonica</i>		Gold Coins
	호접화	<i>Iris japonica</i> Thunb.		Butterfly
	전춘라	<i>Lychnis coronata</i> Thunb.		The edge of the flower is like 'cut silk'.
	옥잠화	<i>Hostaplantaginea</i>		Like a Beautiful Woman Losing her Hairpin
	계관화	<i>Celosia cristata</i> L.		It is more like an auspicious cloud in the sky than the crest on the cock's head.



는 것이다. 서리 맞은 고엽만, 영락하여 폐기된 물건이 된 것 같으나 떼어서 잘 보존하면 또 일 년 내내 물건을 쓰는 데 쓸 수 있다. 이처럼 이어는 연꽃을 사랑한 이유로 연의 관상용 가치와 실용성을 모두 갖기 때문이다. 매괴도 연꽃처럼 사람에게 이로움이 있다하며 대부분의 꽃은 단지 눈을 즐겁게 할 수 있을 뿐인데 비해 매괴는 사람의 입·눈·코·혀·피부와 모발까지 즐거움을 줄 수 있다 하였다. 예를 들어 향낭(香囊)을 만들어 수시로 휴대할 수 있고 먹을 수 있고, 향기를 좋아 맡을 수 있고, 꽃꽂이로도 활용할 수 있으며 여인의 머리 장식으로도 착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어는 이렇듯 매괴는 사람들에게 유익한 점이 많기 때문에 사랑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꽃이라고 했다.

#### 4) 사물의 비유

사물의 형상을 닮은 꽃은 매우 많다. 예컨대, 수구(繡球)를 수놓은 공으로, 금전화(金錢花)<sup>48)</sup>를 황금 동전으로, 호접화(胡蝶花)를 나비로, 전춘라(翦春羅)를 '비단을 오려 만든 듯한 모양'으로 비유한다<sup>49)</sup>.

꽃을 형상화하는 데 있어 더 좋은 사례는 바로 옥잠화(玉簪花)다. 옥잠화는 특히 규방에서 필요한 물건으로 여성들을 이 꽃을 활용해 머리 장식으로 사용하곤 했으며 여성이 거주하는 공간의 울타리 한가운데를 장식하는데 활용되곤 했다. 이맘때의 옥잠화는 미인이 잃어버린 비녀 같기도 하다<sup>50)</sup>.

더 흥미로운 답론은 계관화에 관한 것이다. 계관(雞冠)은 한자 그대로 해석하면 닭 벼슬이라는 뜻이다. 처음에 이 꽃에게 '雞冠'라는 한자를 붙인 이유는 인간 세상에 형상화된 닭 벼슬과 닮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어는 이와 달리 계관화는 세속의 사물보다는 하늘의 상서로운 구름 한 송이와 닮았다고 했다. 이에 그는 이 꽃을 일명 '일타운(一朵雲)'이라고 했으며 색은 다양해서 '오색운(五色雲)'이라고도 했다<sup>51)</sup>.

## IV. 결론

본 연구는 『한정우기』 『종식부』에 수록된 68종 식물 중 상징적 의미와 독특한 향유 방식을 지닌 27종의 식물을 추출하여 고찰했다. 해석한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식물의 상징성이다. 1) 모란을 화왕(花王)으로, 작약을 화상(花相)으로 비유한 것이다. 모란을 화왕으로 삼는 이유는 단지 꽃이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강직하고 정직한 특성을 갖기 때문이다. 모란과 겨룰 수 있는 꽃은 작약밖에 없으나 작약을 화상(花相)으로 비유한다. 이어는 작약도 마땅히 다섯 등급의 제후(諸侯) 대열에 속해야 한다고 평가했다. 2) 복사꽃과 동백꽃을 미인의 뺨으로 해당화, 재스민 꽃, 다화장미, 수선화, 개양귀비를 자태가 다양한 여인으로 비유하면서 이에 대한 사랑스

러운 감정을 꽃에 투영하였다. 3) 이어는 연꽃을 꽃 중의 군자로, 향양목을 나무 중의 군자로 삼는 반대로 서향을 꽃 중의 소인(小人)으로 비유한다. 4) 감탕나무는 소나무와 잣나무의 푸른 실체와 내한성의 특성이 있으나 두 나무만큼 명성이 높지 않다. 또한 감탕나무는 매화와 대나무처럼 풍채가 있으나 절개를 과시하지 않는 까닭에 이어는 감탕나무를 은사로 삼는다. 멀리서 바라본 능소화는 하늘 끝의 신선으로 비유하면서 덩굴 식물 중 그것을 가장 존경할 만한 꽃이라고 했다.

둘째, 식물의 완상 방식이다. 1) 식물감상 시 보조 시설을 활용해야 한다. 야외에 나갈 때 천막을 휴대해야 하고, 정원에서 매화를 감상 시 종이 병풍을 활용해야 정취를 더욱 느낄 수 있다고 했다. 매화 이외에도 이어는 난초가 배치된 위치가 정해지면 서화, 향로, 꽃병 등의 같이 감상할 수 있는 기물을 난초 옆에 배치해야 더욱 다채롭게 향유할 수 있다. 그 외에 난초의 향을 제대로 누리는 비결은 오래 한 방에 있어서는 안 되고 따로 한 칸의 방을 설치해야 한다고 했는데 이는 들어갔다 물러나는 방법으로 시시각각으로 향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이다. 2) 이어는 백일홍과 살구나무와 같은 식물은 동물과 사람처럼 지각이 있다고 주장했다. 3) 오감으로 식물과 교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고, 이는 버드나무와 합환을 통해 가능하다고 했다. 연꽃과 매괴의 예를 들어 식물은 관상 가치 뿐만 아니라 실용 가치가 있다고 강조했다. 4) 사물의 비유이다. 일반 사람들은 계관화를 '닭 벼슬'로 보는 반면 이어는 계관화를 하늘의 상서로운 구름처럼 여긴다고 했다.

종합하자면 본 연구는 역사의 흐름에 따라 이어의 식물에 대한 상징성과 완상 방식을 해석했다는 데에 의미가 있다. 이어의 식물완상의 가장 큰 특징은 식물에 의미를 부여하여 시각적인 아름다움뿐만 아니라 청각·후각·미각에 이르기까지 인간의 다 감각적 세계를 꽃에 투영해서 인격화했다는 점에 있다. 그가 취한 식물의 인격화 방식은 청초 문인들에게서 흔히 사용되었던 방법이었으나 여기에 더해 이어는 식물의 특성을 세밀하게 관찰하여 식물의 특성을 잘 파악하고 완상했다. 무엇보다도 이어는 식물을 인간처럼 지각과 감정이라고 믿었고 식물과 대화하면서 식물에 대해 사랑을 품음으로써 그만의 독특한 식물 향유 방식을 표출하였다는 점에 다른 저서와의 차별성이라고 한다.

주 1) 동준(童儻: 1900-1983): 건축가이자 건축교육가이다. 30년대 초에는 중국 근대 조원이론 연구의 개척자였다. 저서는 『수원고(隨園考)』, 『강남원림지(江南園林誌)』 등이 있다[2].

주 2) 予有四命, 各司一時: 春以水仙、蘭花爲命, 夏以蓮爲命, 秋以海棠爲命, 冬以蠟梅爲命[3:286].

주 3) 비덕설(比德說)은 전통적인 자연미학 사상 범주에 속한다고 말했다. 공자의 '智者樂山, 仁者樂水'에서 비롯된 자연산수의 심미관(審美觀)이다[4:75].

주 4) 등본(藤本)은 줄기가 곧게 서지 않고 다른 것에 감거나 붙어서 덩굴로 뻗어나가는 덩굴성 식물을 가리킨다[19].



- 주 5) 초목의 종류에는 각각 장점이 있는데, 꽃이 고운 것이 있고 잎이 고운 것이 있다. 여기에 이어는 9종류의 관화(觀花)와 관엽(觀葉) 식물만 집중적으로 소개했다[18:410].
- 주 6) 竹木者何? 樹之不花者也. 非盡不花, 其見用於世者, 在此不在彼. 雖花而猶之弗花也[3:300].
- 주 7) Jung(2014)과 Zhang(2018)은 『한정우기』 「종식부」에 수록된 덩굴 식물의 조경기법인 죽병부식법(竹屏扶植法)을 해석했다[1][16].
- 주 8) 본 연구에서 해석된 총 14종 식물의 상징성은 모두 작자인 이어가 실제 언급한 기록이었다.
- 주 9) 본 연구에서 해석된 총 14종 식물(중복되는 연꽃 포함)의 완상 방식은 모두 작자인 이어가 실제 언급한 기록이었다.
- 주 10) 『사물기원·화목화과(事物紀原·花木花果)』에 따르면 측천무후가 겨울에 후화원(後花園)에서 꽃을 감상할 때 모든 꽃들이 만발하였는데, 유독 모란이 더디게 피어 있는 것을 보고 모란을 낙양으로 유배 보내라고 명했다[3:260][20:588-590].
- 주 11) 芍藥與牡丹媲美, 前人署牡丹以 '花王', 署芍藥以 '花相', 冤哉! 予以公道之, 天無二日, 民無二王, 牡丹正位於香國, 芍藥自難並驅, 雖別尊卑, 亦當在五等諸侯之列, 豈王之下, 相之上, 遂無一位一座, 可備酬功之用者哉? [3:283]
- 주 12) 猶芍藥之遜牡丹者, 亦不在花與香而在梗, 牡丹系木本之花, 其開也, 高懸枝梗之上, 得其勢, 則能壯其威儀, 是花王之尊, 尊於勢也, 芍藥出於草本, 僅有葉而無枝, 不得一物相扶, 則委而仆於地矣[3:285].
- 주 13) 옛 사람들은 여인의 미모가 뛰어난다면 명이 짧고 말했다[19].
- 주 14) 도시(桃腮)는 복사꽃 같은 뺨의 뜻이고 도엽(桃鬢)은 복사꽃 같은 볼의 뜻으로 모두 천연적으로 접붙이지 않은 복사꽃을 가리킨다[19].
- 주 15) 春花肖美人之已嫁者, 秋花肖美人之待年者; 春花肖美人之綽約可愛者, 秋花肖美人之纖弱可憐者[13:267].
- 주 16) 朝醉暮吟看不足, 羨他蝴蝶宿深枝 [18:359]
- 주 17) 相傳秋海棠初無是花, 因女子懷人不至, 涕泣灑地, 遂生此花, 可爲 '斷腸花'. 噫, 同一淚也, 灑之林中, 卽成斑竹, 灑之地上, 卽生海棠, 淚之爲物神矣哉![3:267]
- 주 18) 매화를 아내로 한 사람은 임포 한 사람에 불과하지만, 재스민 꽃을 아내로 한 사람은 천하에 두루 존재한다(妻梅者, 止一林逋, 妻茉莉者, 當遍天下而是也)[3:276].
- 주 19) 양가자매(楊家姊妹)는 북송 시기의 저명한 군사 가문인 양씨 집안의 여러 자매다[18:384].
- 주 20) 如水仙之淡而多姿, 不動不搖, 而能作態者, 吾實未之見也[3:286].
- 주 21) 虞美人花葉並嬌, 且動而善舞, 故又名 '舞草'[3:297].
- 주 22) 일촌(寸)은 짧은 단위를 가리키고 약 3.33cm이다[19].
- 주 23) 黃楊每歲長一寸, 不溢分毫, 至閏年反縮一寸, 是天限之木也. 植此宜生憐憫之心, 予新授一名曰 '知命樹'[3:305].
- 주 24) 茂叔以蓮爲花之君子, 予爲增一敵國, 曰: 瑞香乃花之小人, 何也? 『譜』載此花 '一名麝囊, 能損花, 宜另植'[3:275].
- 주 25) 瑞香, 別名 '麝囊', 能損群花, 稱爲花賊, 信不虛也[21:59].
- 주 26) 冬青一樹, 有松柏之實而不居其名: 有梅竹之風而不矜其節, 殆身隱焉文之流亞歟? 然談傲礪雪之姿者, 從未聞一人齒及, 是之推不言祿, 而祿亦不及, 予竊忿之, 當易其名爲 '不求人知樹'[3:307].
- 주 27) 牡丹得王於群花, 予初不服是論, 謂其色其香, 去芍藥有幾? 及睹『事物紀原』, 謂武後冬月遊後苑, 花俱開而牡丹獨遲, 遂貶洛陽, 因大悟曰: "強項若此, 得貶固宜[3:260]."
- 주 28) 由淺紅以至深紅, 無一不備. 其淺也, 如粉如脂, 如美人之腮, 如酒客之面; 其深也, 如朱如火, 如猩猩之血, 如鶴頂之珠[3:269].
- 주 29) 蓮爲花之君子, 此樹當爲木之君子[3:306]
- 주 30) 黃楊爲木之君子, 非稍能格物之笠翁, 孰知之哉? [3:306]
- 주 31) 藤花之可敬者, 莫若凌霄. 然望之如天際真人, 卒急不能招致, 是可敬亦可恨也[3:281].

- 주 32) 風送香來, 香來而寒亦至, 令人開戶不得, 閉戶不得, 是可愛者風, 而可憎者亦風也[3:262].
- 주 33) 雪助花妍, 雪凍而花亦凍, 令人去之不可, 留之不可, 是有功者雪, 有過者亦雪也[3:262].
- 주 34) 觀梅之具有二: 山遊者必帶帳房, 實三面而虛其前, 制同湯網, 其中多設爐炭, 既可致溫, 復備暖酒之用. 此一法也[3:262].
- 주 35) 園居者設紙屏數扇, 覆以平頂, 四面設窓, 盡可開閉, 隨花所在, 撐而就之. 此屏不止觀梅, 是花皆然, 可備終歲之用. 立一小區, 名曰 '就花居'. 花間豎一旗幟, 不論何花, 概以總名曰 '縮地花', 此一法也[3:262].
- 주 36) 蘭之初著花時, 自應易其座位, 外者內之, 遠者近之, 卑者尊之[3:284].
- 주 37) 居處一室, 則當美其供設, 書畫爐瓶, 種種器玩, 皆宜森列其旁. 但勿焚香, 香薰卽謝[3:284].
- 주 38) 禽獸草木盡是有知之物, 但禽獸之知, 稍異於人, 草木之知, 又稍異於禽獸, 漸蠢則漸愚耳[3:269].
- 주 39) 種杏不實者, 以處子常系之裙系樹上, 便結子累累[3:264].
- 주 40) 莊子非魚, 能知魚之樂; 笠翁非鳥, 能識鳥之情[3:305].
- 주 41) 마음이 서로 통하는 친한 벗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열자(列子)』에 거문고의 명인 백아(伯牙)가 자기의 소리를 잘 이해해 준 벗 종자기(鍾子期)가 죽자 자신의 거문고 소리를 아는 자가 없다고 하여 거문고 줄을 끊었다는데서 유래한다[19].
- 주 42) 합환(合歡)은 자귀나무이다. 합환은 화합하여 즐긴다는 뜻이다. 이 나무는 아침에 벌어졌다가 저녁에 오므라들며, 황혼이 될 때마다 가지와 잎이 서로 얽히므로 '합환'이라는 이름을 했다[18:373].
- 주 43) 常以男女同浴之水, 隔一宿而澆其根, 則花之芳艷較常加倍[3:274].
- 주 44) 柳貴於垂, 不垂則可無柳. 柳條貴長, 不長則無裊娜之致, 徒垂無益也. 此樹爲納蟬之所, 諸鳥亦集[3:304].
- 주 45) 對合歡而鑿忿, 則不必訊之他人, 凡見此花者, 無不解慍成歡, 破涕爲笑[3:273].
- 주 46) 此皆言其可目者也. 可鼻則有荷葉之清香, 荷花之異馥, 避暑而暑爲之退, 納涼而涼逐之生. 至其可人之口者, 則蓮實與藕, 皆並列盤餐, 而互芬齒頰者也. 只有霜中敗葉, 零落難堪, 似成棄物矣, 乃摘而藏之, 又備經年裹物之用[3:287-288].
- 주 47) 群花止能娛目, 此則口眼鼻舌以至肌體毛發, 無一不在所奉之中. 可囊可食, 可嗅可觀, 可插可戴, 是能忠臣其身[3:280].
- 주 48) 동그란 꽃 모양이 황금 동전을 닮았다 해서 금전화(金錢花)로 부른다. 또는 선복화(旋覆花), 금불초(金沸草), 적적금(滴滴金), 하국(夏菊), 대심(戴帽) 등의 이명도 있다[19].
- 주 49) 花之肖形者盡多, 如繡球, 玉簪, 金錢, 蝴蝶, 剪春羅之屬, 皆能酷似, 然皆塵世中物也; 能肖天上之形者, 獨有雞冠花一種[3:289-290].
- 주 50) 插入婦人髻中, 孰真孰假, 幾不能辨, 乃閨閣中必需之物. 然留之弗摘, 點綴籬間, 亦似美人之遺[3:290].
- 주 51) 雞冠雖肖, 然而賤視花容矣, 請易其字, 曰 '一朵雲'. 此花有紅, 紫, 黃, 白四色, 紅者爲 '紅雲', 紫者爲 '紫雲', 黃者爲 '黃雲', 白者爲 '白雲', 又有一種五色者, 卽名爲 '五色雲'[3:290].

## REFERENCES

- [1] Zhang, L., Jung, W. J. and Sung, J. S.(2018). A Study on Gardening Theories of Li, Yu in 'Xian Qing Ou Ji'. Journal of Korean Institute of Traditional Landscape Architecture, 36(3): 137-148.
- [2] <https://zh.wikipedia.org/wiki/童窩>
- [3] Li, Y.(1988). 『Li Yu Quan Ji, Volume III, Xian Qing Ou Ji(李漁全集第三卷 閑情偶寄)』, Zhejiang Ancient Books Publishing House.
- [4] Zhang, J. Y.(2010). 『Small encyclopedia of Chinese Garden Art(中國園林藝術小百科)』, China Construction Industry Press.

- [5] So, H. S. and Lim, E. J.(2013). Objects and Landscape Characteristics of Japanese Apricot(Prunus mume) Appreciation through the Poem Titles. Journal of Korean Institute of Traditional Landscape Architecture. 31(4): 84-94.
- [6] Lee, S. O.(2007). The symbolism of Flowering Plum and Ink Plum Painting. The Journal of Honam Area Studies. 40(-): 37-77.
- [7] Lee, I. S.(2010). Cultural 'nets' of meaning of the plantain(芭蕉). Journal of Daedong Han Literary Society. 32(-): 295-333.
- [8] Kim, M. H. and Hong, H. S.(2011). Utility and Care Patterns of Lotus Shown in Classic Poetries and Proses, Painting. Journal of Korean Institute of Traditional Landscape Architecture. 29(4): 1-13.
- [9] Yun, J. Y.(2014). A Study on Cultural Interpretation of the Plants in "The Book of Songs" - Based on Symbolic Elements and Landscape Elements -. Journal of Korean Institute of Traditional Landscape Architecture. 32(3): 96-109.
- [10] Wen, B., Yang, L. B., Gan, D. X. and H. L. B.(2018). Plant Culture and Landscape Application of 'Poetry of the South(楚辭)'. Chinese Horticultural Abstracts. (1): 79-81.
- [11] Huang, Z. Q.(2019). The Cultural Connotation and Application of Wisteria in Landscape Architecture. Southern Horticulture. 30(2): 36-39.
- [12] Zhao, Y. Y. and Chen, Y. H.(2019). Discussion on Narrative Expression of Plant Landscape. Journal of Chinese Urban Forestry. 17(2): 87-91.
- [13] Gu, G. C.(2013). The Full View of Plants in Yuanye and 'the Substraction of Plant Gardening' of Ji Cheng. Symposium of Chinese Society of Landscape Architecture in 2013. pp.917-922.
- [14] Li, Y. and Lin, Z.(2010). Study on Plant Landscaping Techniques in Book of Superfluities(長物志). Landscape Research. 39(5): 2982-2984.
- [15] Wang, M. X.(2015). A Study on Plant Landscape and its' Idea Expression of 'Yuanye' and 'Superfluous Things(長物志)'. Architecture and Culture. (9): 143-145.
- [16] Jung, W. J., Kwon, O. M. and Sim, W. K.(2014). Studies on the Utilization of Bamboo Screen(Zhuping: 竹屏) and the Meaning in Gardening Books of Ming Dynasty. Journal of Korean Institute of Traditional Landscape Architecture. 31(1): 83-92.
- [17] Park, H. S. and Yun, J. Y.(2016). A Comparative Study on Yanghwatorok(養花小錄) and Changwuzhi - Focused on the Taste of Plants in Scholar's Garden, Korea and China -. Journal of the Korea Institute of Landscape Architecture. 44(3): 79-93.
- [18] Kim, U. J.(2018). 『A Garden of Pleasure』. Translation and Annotation Book. Geulhangali.
- [19] <https://dict.naver.com/>
- [20] Kim, M. W.(2015). 『Shiwujiyuan(事物紀原)』. Translation and Annotation Book. Yeoglag.
- [21] Li, X. and Wang, G.(2015). 『Changwuzhi(長物志)』. Jiangsu Phoenix Literature and Art Publishing.
- [22] <https://www.google.com/>

원 고 접 수 일: 2019년 3월 15일  
 심 사 일: 2019년 3월 28일 (1차)  
                   : 2019년 5월 31일 (2차)  
                   : 2019년 6월 11일 (3차)  
                   : 2019년 6월 17일 (4차)  
 계 재 확 정 일: 2019년 6월 17일  
 4인 익명 심사필, 1인 영문 abstract 교정필